2014
다문화 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Final Report

발 행 일 2015년 1월
발 행 처 (재)한국여성재단
발 행 인 조형
기획편집 지원사업팀
디 자 인 디자인생선가게

Contents

03 **인사말**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조형

04 **현우네의 베트남 외가방문 이야기**

21 **함께 한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김민정 · 김진환 · 김기훈 · 김지현 가족
박은아 · 유지한 · 유한영 · 유보영 가족
부티응우꾸잉 · 박태선 · 박정미 가족
부티항 · 김진식 · 김정호 · 김현호 · 김백호 가족
서진주 · 임중식 · 임하영 · 임아영 가족
부이티뚜엣 · 배양근 · 배유진 · 배형진 가족
부진주 · 진영환 · 진제하 · 진소연 가족
당타이웅 · 황현율 · 황지민 · 황혜민 가족
응엔티튀 · 김대환 · 김민석 · 김민재 가족
응옌티탄투이 · 안우상 · 안영화 가족
김은혜 · 김길수 · 김영광 · 김영환 가족
부이티화라이 · 김덕수 · 김예화 · 김영운 가족
서미영 · 고명석 · 고장성 가족
이남경 · 이천만 · 이신후 · 이신민 · 이유미 가족
쩐탄능 · 백전선 · 백세현 · 백세진 · 백세미 가족
김윤아 · 성인수 · 성남식 · 성유리 가족
정지원 · 류준모 · 류예지 · 류연자 · 류민지 가족
누엔티투융 · 이헌권 · 이상원 · 이송원 가족
레티미린 · 유병옥 · 유보미 · 유혜선 가족
황재희 · 엄희정 · 엄세현 가족

42 **2014 다문화 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소개**

43 **사진으로 만나는 2014 다문화 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48 **한국여성재단 소개**

49 **후원사 소개**

인사말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아이들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 무더웠던 2014년 8월, 다문화가정 총 20가족(총 79명)이 외가방문을 위해 베트남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의 후원으로 8년째를 맞이한 본 사업은 2013년부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미래의 글로벌 리더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발판이 되고자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사업에서 [다문화 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으로 도약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만 1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총 40명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외가방문을 앞두고 진행된 1박 2일 사전 가족 프로그램에는 20가족이 모두 함께 참여하여 '엄마 나라', '아내 나라'를 먼저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에서의 7박 9일이라는 시간동안 어린 자녀들에게 "베트남"은 낯선 이국이 아닌, 사랑이 가득한 '외가'가 되었고, 남편들에게는 반가운 '처가'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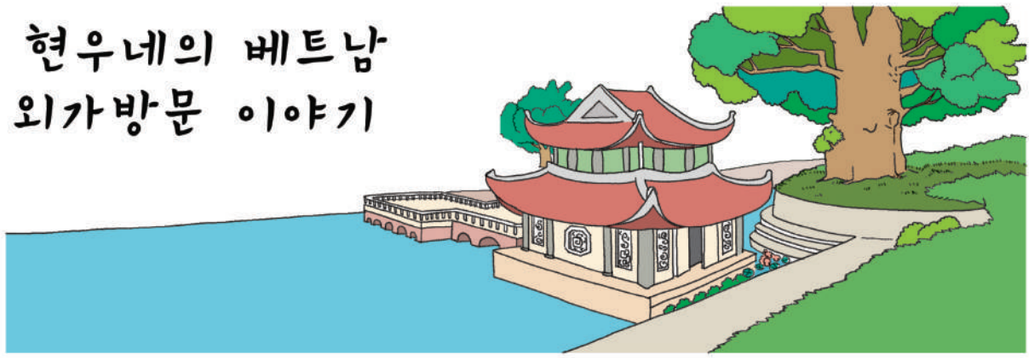
'왜 우리 엄마는 내 친구 엄마와는 다를까?'하는 어린 마음에 무뚝뚝했던 아이들이 외가를 다녀온 이후 베트남어를 배우며 베트남 노래를 흥얼거리고, 엄마 손 꼭 잡고 최종보고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8년이란 시간동안 본 사업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올해 함께했던 다문화가정의 모든 아이들이 베트남에 다녀온 기억을 밑거름삼아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행복한 한해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해주신 분들에게 지면으로나마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본 사업에 지속적인 후원을 해주고 있는 삼성생명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가족들의 외가방문을 위해 물신양면 지원해준 NGO활동가분들,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알차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해준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 연구팀, 재능 나눔을 통해 본 사업을 더 빛나게 해주신 조세현 작가와 슈 · 임효성 부부, 기사를 통해 외가에 방문한 다문화 가족들의 기쁨을 함께 나눠주신 동아일보, 여성중앙, SBS, EBS 및 국내 · 외 언론사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고 따뜻한 이웃으로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조 형


현우네의 베트남
외가방문 이야기

옛날 옛날 흥왕 시절, 평화로운 베트남 푸동 마을에
'지웅'이라는 사내아이가 살았어요.

지웅은 특별한 아이였어요.
지웅은 세살이 다 되도록 말을 하지 못했고,
하루종일 침대에 누워있기만 했어요.

그즈음 언이라는 도둑떼가 나타나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았어요.

나라가 위험에 빠지자 베트남의 왕은 온 나라에
심부름꾼을 보내 도둑떼를 물리칠 수 있는
용감한 장수를 찾았어요.

지웅이 사는 마을에도 심부름꾼이찾아왔어요.
그러자 지웅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에게 심부름꾼을
불러 달라고 부탁했어요.

깜짝 놀란 어머니가 심부름꾼을 불러오자
지웅은 위엄있게 말했어요.

"왕에게 가서 내가 도둑을 물리칠 수
있도록 쇠로 된 말과 쇠로 만든 모자,
그리고 쇠막대기를 만들어 달라고
전하시오."

그리고 나서 지웅은 며칠만에
몸집이 크고 힘이 센
남자 어른으로 자라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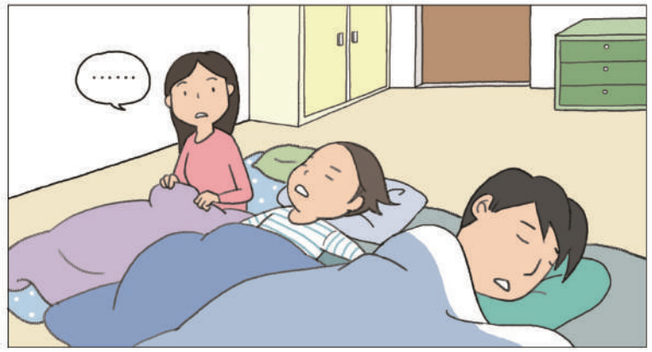
용감한 장수가 된 지웅은
왕이 준비한 쇠모자를 쓰고,
쇠로 만든 말을 타고. 쇠막대기를
휘두르며 도둑떼를 물리쳤어요.

사람들은 모두 고마워하며
지웅을 칭송했어요.

아기 장수 지웅, 위대한 지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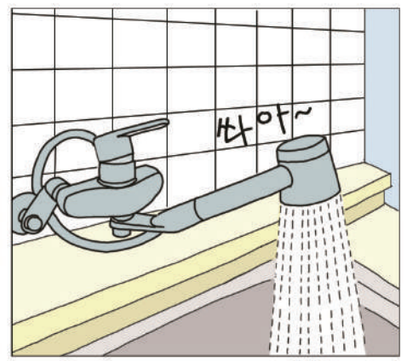
용감한 지웅...
핫!
번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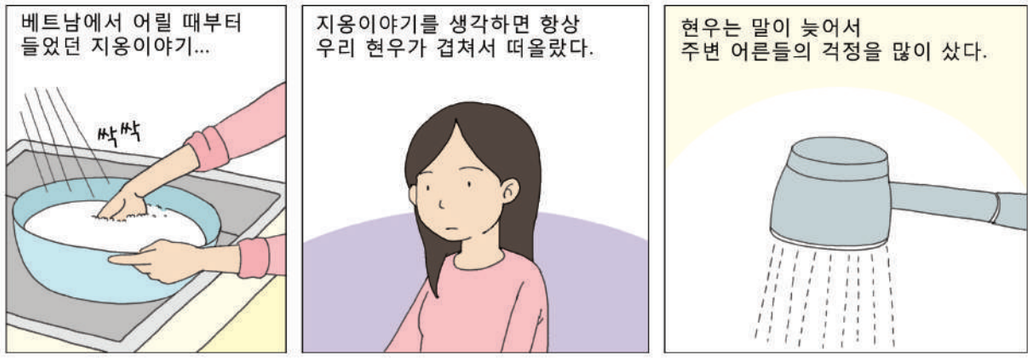
벌떡


.....

휴... 또 같은 꿈을 꿨어...

살금
살금


싸아~


베트남에서 어릴 때부터
들었던 지옹이야기...
싹싹

지옹이야기를 생각하면 항상
우리 현우가 겹쳐서 떠올랐다.

현우는 말이 늦어서
주변 어른들의 걱정을 많이 샀다.

특히 시어머니는 현우가 또래
아이들보다 작고 늦되다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어제도 집에 오셔서 내내
한숨 섞인 걱정을 하다 가셨다.
아!

그래서 내가 또
그 꿈을 꿨구나~

시어머니의 걱정을 들을 때마다
나는 지옹의 꿈을 꾼다.
어쩐지...

끼익~
탕!

벌써
일어났어요?
응...

얼른 아침
지을게요.
응...

남편은 성실하지만 무뚝뚝한
사람이다.

내가 하는 일에 딱히 좋다 싫다
표현을 하지 않는다.
싹싹
싹싹

그래도 느낄 수 있다.

현우가 행여나 다른 평범한 집의 아이들보다
처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을 ...

우리 현우가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고 무난하게
자라길 바란다는 것을...

엄마는 베트남 말로
메(Me) 라고 해.

한번 따라해 보렴.
메~

뭘 그런 걸
가르치고 있어?

아직 우리말도
서툰 애한테...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들 나에게서 베트남의
빛깔을 지우기를 바란다.
치익-

내가 하는 말,
내가 뛰놀던 산과 들의 기억,
내가 즐겨먹던 갖가지 음식들
베트남에 있는 나의 가족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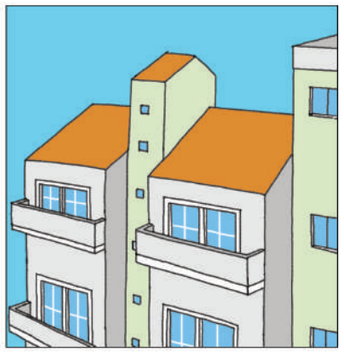
나의 모든 것이 이 곳에서는
아무 빛깔을 낼 수 없다.
현우에게 지옹 이야기는
먼나라 이야기다.

하지만...
엄마~

엄마
배고파

우리 현우 일어났구나?
엄마가 얼른
아침밥 차려줄게~

훌륭한 어른이 된 지웅처럼
우리 현우도 크게 성장할거야.
후암~



여보

우리 베트남에
다녀오면 안되요?
뭐?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그런게
아니라...

당신한텐 미안한
말이지만...
베트남이 서울이나
대전 쯤 되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값이며
이것저것
한두푼 들지
않을텐데...

나중에 현우가 더
크고 나면 그 때
형편 봐서 한 번...

여기

이게 뭔데?
나 이번에
여성재단에서 하는
외가방문사업에
선정됐어요.

당신과 나 그리고
현우까지, 모두
베트남 외가에
보내준대요.

나도 모르게
이런 거
신청한거야?
선정 안되면
얘기 안하려고 했어요.
되든 안되든
당신 신경쓸까봐.

다녀오는 동안
여기 일은 어떻게
하고... 어머니도
달가워하지
않으실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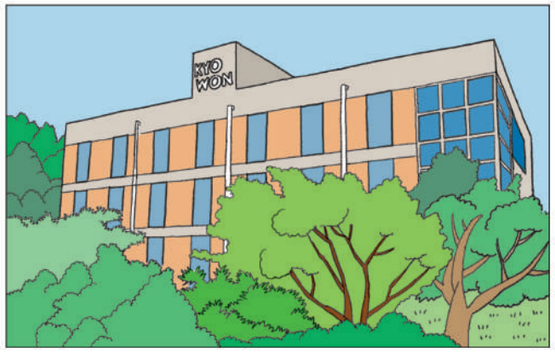
일단 생각은 해보겠지만
기대하지는 마.
여보~

.....

엄마! 우리
베트남에
비행기
타고 가?

음...
가게 되면.
만세~

베트남
가는게
그렇게
좋아?
아니,
비행기
타는 게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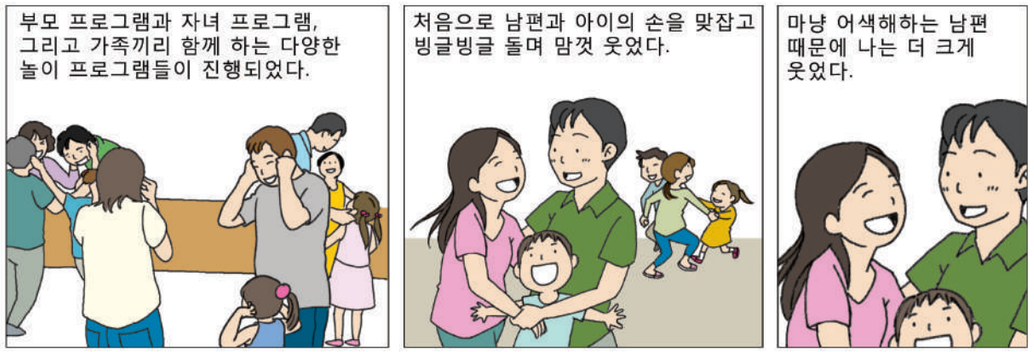

KYO
WON

결국 남편은 허락했다.
오 리 엔 테 이 션

별로 내켜하지 않는 시어머니도 설득해 주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이도
동행하는 점이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

다문화 아동 외가방문
지원 사업에 참석하신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외가 방문 전에 베트남에 대해
사전 지식도 얻고, 가족 여러분과
화합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사업에 선정된 20가족이 처음
만나는 자리... 약간 어색한 인사
나누기를 시작으로,


부모 프로그램과 자녀 프로그램,
그리고 가족끼리 함께 하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처음으로 남편과 아이의 손을 맞잡고
빙글빙글 돌며 맘껏 웃었다.
마냥 어색해하는 남편
때문에 나는 더 크게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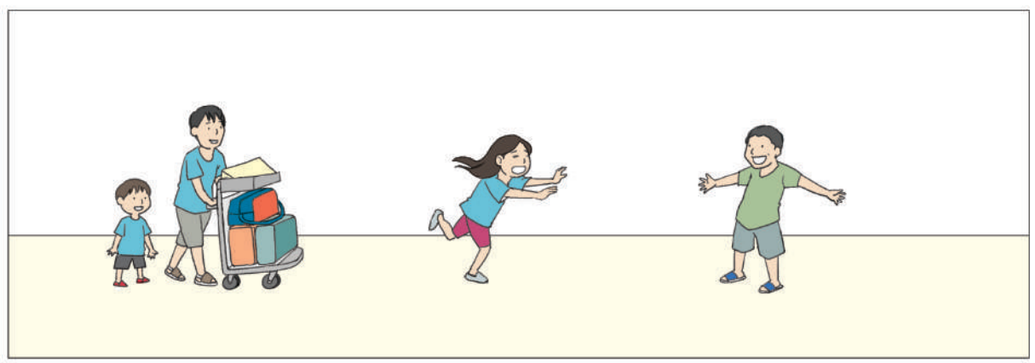
엄마가 깔깔깔하고
웃는 거 처음 봐.
뭐? 엄마가 정말
그렇게 웃었어?
많이 이상해?
글쎄...
그런가?
아빠도
처음 보지?
그러고 보니
처음 만났을 땐
굉장히 잘 웃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 맞아.
그 때 당신, 한국어가
서툴어서 내가
무슨 말만 꺼내면
웃기부터 했어.
말은 안통하지,
딱히 할 말도 없지...
잇몸까지 드러내고 활짝 웃는
당신 때문에 나도 덩달아서
헤벌쭉 웃기만 했던 일이
기억나는군.
당신은...
왠지 말이
많아졌네요?
그래? 많이
이상해?
응,
이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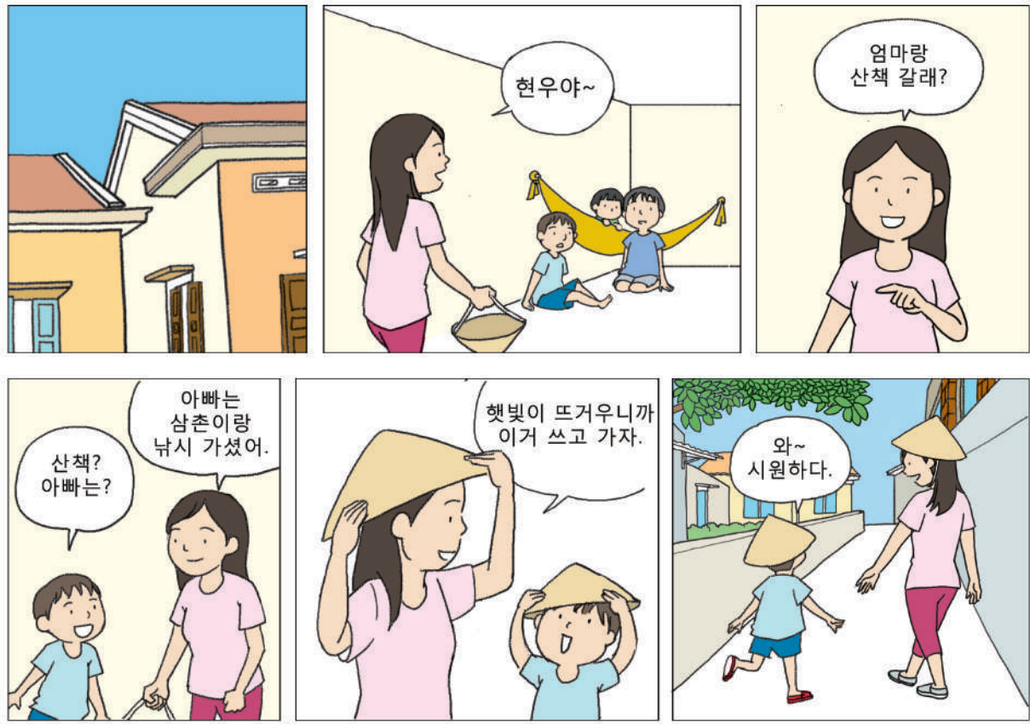
그렇게 말이 많아진 남편과 웃음이 많아진 나, 그리고 외할머니를 만난다는 설레임에 가득찬 현우,
모두가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날이 되었다.
NHÀ GA HÀNH KHÁCH T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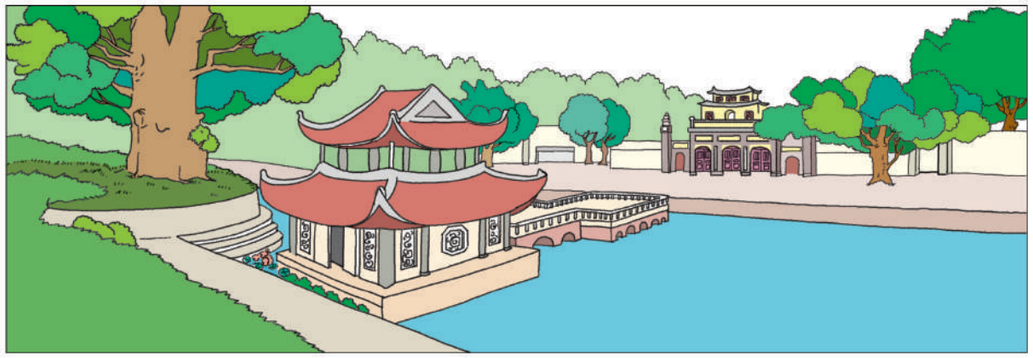
여기 어디...오빠가
나와 있을텐데...
여기서 잠깐
기다려요. 다른
출구가 있는지
물어보고 올게요

우와~
우리 엄마
외국말 엄청
잘하네~
당연하지~
베트남 사람
이니까...
근데 아빠는 왜
베트남 말을
하나도 못해?
그...
그건...
엄마는
한국말도
잘 하는데.
여보~
저기,
우리 오빠가...



7년만에 만나는 엄마는 너무 늙어 보여서 나는 오랫동안 엄마를 쳐다보지 못하고 울었다.
엄마는 현우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쓰다듬으며 이뻐하셨다.
남편의 손도 몇번이나 붙잡고 토닥거렸다.
그동안 식구가 늘어 올망졸망한 조카들이 여럿 생겼다.
아이들은 신기한듯 현우에게 호기심을 보이더니
아이들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하며 현우를 좋아하고 아껴주었다.
그만 좀 따라다녀~
그렇게 7년만에 꿈에 그리던 고향에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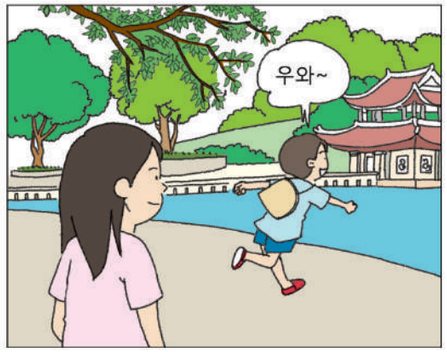

현우야~
엄마랑 산책 갈래?
산책? 아빠는?
아빠는 삼촌이랑 낚시 가셨어.
햇빛이 뜨거우니까 이거 쓰고 가자.
와~ 시원하다.
엄마, 어디로 가요?
근처에 지옹신을 모시는 사원이 있어.
엄마가 어렸을때 자주 놀던 곳이야.
지옹? 지용? 죵?
하하~ 다 맞아.
지옹 지~옹
지옹신은 뭐하는 사람이예요?
지옹신은 옛날에 도둑떼를 물리치고 베트남을 지킨 용감한 장수였단다.
봐! 저기야!



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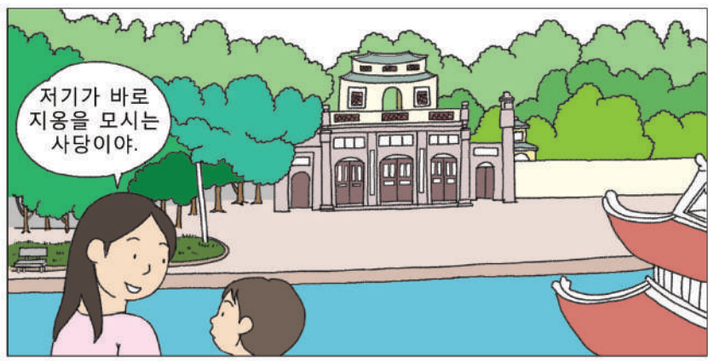
멋있다~
연못도 있고~

엄마! 여기
물고기도
살아?
그럼~물론이지


우와~

앗!

저 건너에
있는 건
뭐지?


저기가 바로
지옹을 모시는
사당이야.

여기에서 해마다 지옹을 숭배하는 축제가
크게 열려. 용감한 지옹이 도둑을 물리치는
장면을 사람들이 깃발춤으로 재현하는데
정말 멋있어.
우와~

엄마는 지옹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현우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
나랑?
왜?

지옹은 세살때까지 말을
못하는 아기였거든.
현우도 애기였을 때 말을
잘 못해서... 엄마는 현우가
나중에 지옹처럼 훌륭한
어른이 되려나보다 생각했지.

으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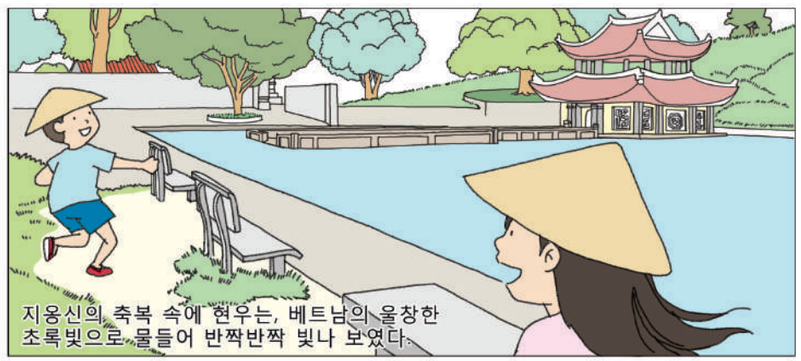
나는 이제
말 잘하는데?
그림책도 다
읽을 줄 알아.
그래,
맞아.

그리고 전에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막 싸울 때
내가 가서 말렸는데
선생님이 용감하다고
칭찬했어.
이야~
정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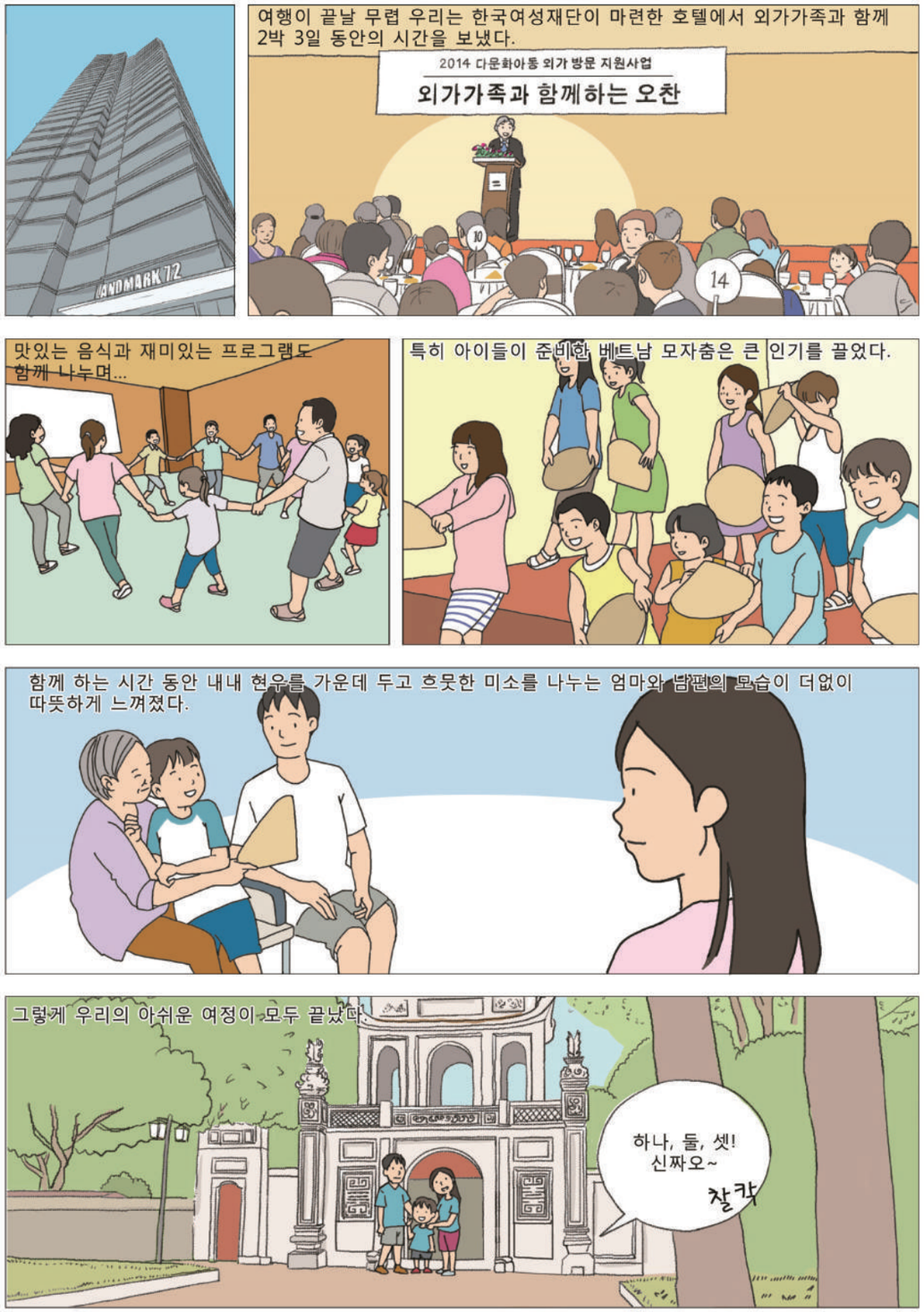
어?
비다!

우리 이거 쓰고
저기까지
뛰어 갈까?
좋아요!

지옹축제가 끝나고
내리는 비는 신의
축복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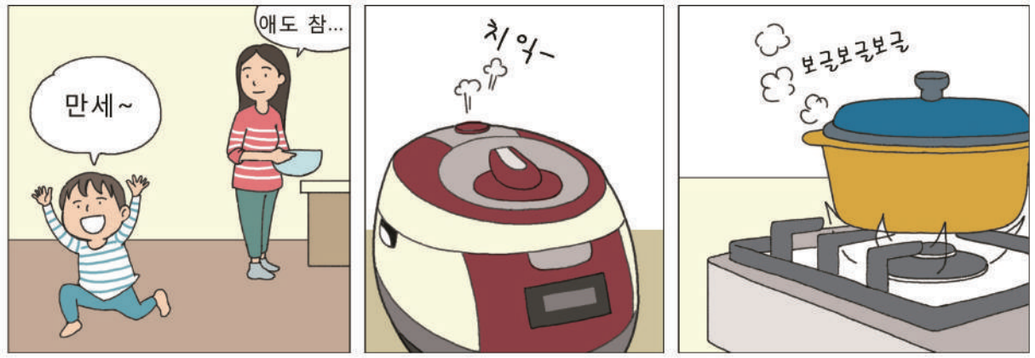

지옹신의 축복 속에 현우는, 베트남의 울창한
초록빛으로 물들어 반짝반짝 빛나 보였다.

뭐 해?
내일 호텔로 가야하니까... 짐정리 하고 있어요.
낚시는 어땠어요?
응. 좋았어.
우리 오빠 재미있는 사람이죠?
응. 그런데 말이 안통해서 애먹었어.
현우는, 자기는 벌써 베트남어 할 줄 안다고 유치원 가서 친구들한테도 알려줄거라고 난리예요.
그래?
나도 이참에 베트남어를 좀 배워야 하려나...
나는 지옹신이다~
현우 목소리 아니야? 뭐라는 거야?
아... 오늘 근처에 있는 사원에 같이 다녀 왔거든요.
거기 모셔져 있는 지옹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좀... 잘못 이해한 것 같네요.
무슨 만화주인공 이름이야?
지오옹~ 파워!!!
꺄르르~


LANDMARK 72
여행이 끝날 무렵 우리는 한국여성재단이 마련한 호텔에서 외가가족과 함께 2박 3일 동안의 시간을 보냈다.
2014 다문화아동 외가 방문 지원사업
외가가족과 함께하는 오찬
맛있는 음식과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나누며...
특히 아이들이 준비한 베트남 모자춤은 큰 인기를 끌었다.
함께 하는 시간 동안 내내 현우를 가운데 두고 흐뭇한 미소를 나누는 엄마와 남편의 모습이 더없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우리의 아쉬운 여정이 모두 끝났다.
하나, 둘, 셋! 신짜오~
찰칵

싸아~
싹싹
싹싹
끼익
탕!
일어났어요?
응...

얼른 아침 차릴게요.
이거
OO은행
어젯밤에 준다는 걸 깜박 했어.
이게 뭐예요?
적금통장이야.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자주는 못가더라도 한번씩 베트남에 다녀오자구.
당신도 참...
얼른 밥 줘~ 배고파~
엄마 엄마 엄마~
밖에 눈이 엄청 왔어요!
엄마 나 밖에서 잠깐 놀다 오면 안돼?
밥 먹기 전에 들어와야 된다?


애도 참...
만세~
치익~
보글보글보글

후르릅
음~ 맛있어~
이런 맛도 낼 줄 알고... 나도 참...한국 사람 다 됐지.
근데 얘는 왜 아직도 안 들어와?
으~ 춥다~
현우야~
어머...
엄마~
그 해 여름 현우를 물들였던 베트남의 초록빛은 사라지지 않고 영롱하게 빛났다.
이렇게 여러가지 색깔로 반짝반짝 빛을 내며 내 아이를 자라게 한다.
베트남 눈사람이야~ 사진 찍어서 베트남 할머니한테 보여줘~

2014 다문화 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함께 한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서미영 고명석
고장성 당타이웅
황현율 황지민 황혜민
정지원 류준모 박은아 유지한 유한영
류예지 류연자 류민지 유보영
부이티뚜엣 배양근 배유진 배형진
이남경 이천만 이신후 이신민 이유미
김민정 김진환 김기훈 김지현
쩐탄능 백전선 백세현 백세진 백세미
부진주 진영환 진제하 진소연
김윤아 성인수 성남식
성유리 김민석 김민재
김현호 김백호

황재희 엄희정
엄세현 레티미린
유병옥 유보미 유혜선
김은혜 김길수 김영광 김영환
부이티화라이 김덕수 김예화 김영운
누엔티투융 이헌권 이상원 이송원
응옌티탄투이 안우상 안영화
서진주 임중식 임하영 임아영
부티응우꾸잉
박태선 박정미
응엔티튀 김대환

첫 번째 가족

김민정, 김진환
김기훈, 김지현 가족

동생이랑 엄마랑 누나 3명이랑 같이 놀았어요.
이모네서 놀았어요.
엄마, 아빠와 함께 여행하게 되서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두 번째 가족

박은아, 유지한
유한영, 유보영 가족

베트남에서 밥 먹고,
만두 먹은 것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엄마, 아빠 웃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에 또 베트남에 오고싶어요.

세 번째 가족

부티응우꾸잉, 박태선
박정미 가족

여행오니까 좋구요 감사해요.
엄마 덕분에 이렇게 베트남도 와보고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어요.

네 번째 가족

부티항, 김진식
김정호, 김현호, 김백호 가족

베트남 할머니 집에서 참새 고기를 먹었어요.
나만 빼고 모두 다 먹었어요.
천장에 도마뱀이 기어 다니는 것도
보았어요.
나는 안 무서웠어요.

다섯 번째 가족

서진주, 임중식
임하영, 임아영 가족

고양이 본 것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다른 사람 집 지붕 위에 있었어요.
한 고양이는 이모 집에서 봤어요.
재미있었던 일이 7개.. 아니 10개 있었어요.

여섯 번째 가족

부이티뚜엣, 배양근
배유진, 배형진 가족

엄마, 아빠, 유진이, 형진이가
신기한 것 보러 갔어요.
분홍색 사과도 보고
나무 위에 있는 코코넛도 봤어요.
엄마 아빠랑 함께 여행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일곱 번째 가족

부진주, 진영환
진제하, 진소연 가족

외갓집에서 코코넛을 먹었어요.
친구들에게 개구리 튀김,
개구리 탕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여행하게 해주셔서
아빠, 엄마께 감사해요.

여덟 번째 가족

당타이웅, 황현율
황지민, 황혜민 가족

집안에서 사촌들과 노래를 부르며 놀았어요.
외할머니가 갈비찜을 해주셨는데
엄청 맛있었어요!

아홉 번째 가족

응엔티튀, 김대환
김민석, 김민재 가족

외할머니 집에서 도마뱀을 보았어요.
외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쌀국수 만들어 주셨을 때 맛있게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열 번째 가족

응옌티탄투이, 안우상
안영화 가족

엄마랑 아빠랑 함께해서 좋아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열한 번째 가족

김은혜, 김길수
김영광, 김영환 가족

베트남에서 상어 같은 이상한 물고기 잡았어요.
더듬이가 6개 있는 고기를 내가 잡았어요.
요메이 이모가 나랑 똑같은 고기 잡았어요.

열두 번째 가족

부이티화라이, 김덕수
김예화, 김영운 가족

베트남 동생이랑 같이
장난감 갖고 놀았어요.
자동차인형 갖고도 놀았어요.
재미있었어요.

열세 번째 가족

서미영, 고명석
고장성 가족

할머니가 '장성이 4년 뒤에 또 오세요' 하는데
제가 2년 뒤에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또 가고 싶어요.

열네 번째 가족

이남경, 이천만
이신후, 이신민, 이유미 가족

도마뱀도 보고
비올때 두꺼비 다섯 마리도 만났어요.
무섭지 않고 신기하고 귀여웠어요.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랑
배를 탄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열다섯 번째 가족

쩐탄능, 백전선
백세현, 백세진, 백세미 가족

엄마랑 이모가 배를 태워주셔서 재미있었어요.
한 살 때 이후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만난 것은 처음이라 조금 어색했지만
엄마가 좋아해서 내 기분도 좋았어요.

열여섯 번째 가족

김윤아, 성인수
성남식, 성유리 가족

외갓집에 와서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았어요.
베트남어도 조금 따라했어요.

열일곱 번째 가족

정지원, 류준모
류예지, 류연자, 류민지 가족

비행기 타고 호치민에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외삼촌도 만나고 왔어요.
다 함께 물놀이를 할 때 즐거웠어요.

열여덟 번째 가족

누엔티투융, 이헌권
이상원, 이송원 가족

베트남 집에서 수영장에서 놀았어요.
수영 다 하고 11시까지 춤췄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강남스타일 춤도 췄어요.

열아홉 번째 가족

레티미린, 유병옥
유보미, 유혜선 가족

수영장에 가서 사촌동생, 오빠, 혜선이,
삼촌이랑 같이 놀았어요.
파도풀은 파도가 넘실거렸는데
튜브 끼고 파도 타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스무 번째 가족

황재희, 엄희정
엄세현 가족

처음에는 말도 아주 안 통했는데
근데요
베트남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립기도 해요.

2014 다문화 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2014 다문화 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소개
사진으로 만나는 2014 다문화 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2014 다문화 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소개

2014 다문화 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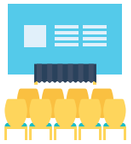
한국 사회 미래주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외가방문 및 엄마나라 문화체험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가를 넘나드는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014 다문화 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4 다문화 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진행과정

참가가족 모집 및 접수
접수 기간 | 2014년 4월 21일(월) ~ 5월 16일(금)
지원 내역 | 선정 가족구성원의 [인천 ↔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왕복 항공료 지원
1박 2일 사전 프로그램, 7박 9일 외가방문 및 현지 프로그램 제공
선정 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다문화가정 자녀 및 부모

참가가족 선정
접수 결과 | 총 100가족 신청
최종 선정 | 총 20가족 (하노이 10가족, 호치민 10가족, 총 79명)



선정 가족 사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일시 | 2014년 8월 2일(토) ~ 3일(일)
장소 | 교원도고연수원
내용 | 베트남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베트남 문화에 대한 다양한 경험 제공,
다문화가정 부모 교육 지원, 실무자 소개 및 참가가족 간 네트워킹 형성

현지프로그램 : 베트남 외가방문
일시 | 2014년 8월 23일(토) ~ 31일(일)
장소 | 하노이 & 호치민
내용 | 베트남 외가방문, 외가가족 초청 오찬, 베트남 문화체험

[2014 다문화 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참여가족 초청 최종보고회
일시 | 2014년 11월 23일(일)
장소 | 63빌딩 컨벤션센터
내용 | 참가가족 및 활동가 소감 나눔, 가족프로그램 제공

사진으로 만나는 2014 다문화 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선정 가족 사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일 시 | 8월 2일(토) ~ 3일(일), 1박 2일
장 소 | 교원도고연수원
참가자 | 선정 가족 20가정 (총 79명), 권역단체, 연구팀, SBS, EBS 등 총 100명

8. 2 (토)

자녀 프로그램
- 이야기 나누기 '엄마나라 베트남', '친구(가족)를 칭찬할래요'
- 만들기 프로그램 '우리가족 행복했던 일'
- 체험프로그램 '베트남 전통 놀이', '베트남 모자만들기' 등

부모 프로그램
- 푸드테라피
- 부모교육
- 다문화 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 등

8. 3 (일)

자녀 프로그램 및 부모 프로그램
- 이야기 나누기 '엄마나라 베트남어로 말해요'
- 그림 사전 만들기
- (부모 프로그램) 소집단토론

베트남/한국 전통 춤 배우기
- 모자춤, 강강술래

현지 프로그램 : 베트남 외가방문

8. 23 (토) 베트남 출국

총 10가족 (39명) 인천공항에서 하노이 공항으로, 총 10가족 (40명) 인천공항에서 호치민 공항으로 출발~
하롱베이, 하이퐁, 하우양, 구찌 등 베트남 각지에 살고 있는 외가로 이동

8. 24 (일) ~ 27 (수) 외가방문

조금은 낯설지만 '가족'이란 이름 아래 하나가 된 소중한 4박 5일

8. 28 (목) 외가가족 초청 오찬

하노이
장 소 | 랜드마크 72
참석자 | 총 80명
가 족 | 총 59명 (다문화가족 39명 + 외가가족 20명)
내 빈 | 하노이 대사관 대사,
한국문화연구원 원장, 베트남여성연맹
삼성생명 베트남주재사무소 소장, 삼성생명

호치민
장 소 | 비사이 사이공 호텔
참석자 | 총 74명
가 족 | 총 60명 (다문화가족 40명 + 외가가족 20명)
내 빈 | 호치민 총영사관 부총영사
호치민 총영사관 영사

8. 29 (금) 외가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 가족 소개
- 다 함께 레크리에이션
-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리는 선물 : 노래 및 모자 춤

8. 29 (금) 자녀 및 부모 프로그램

- 베트남에서 즐거웠던 일 이야기 나누기
- '베트남을 소개합니다' 책 만들기

8. 30 (토) 문화체험

하노이
야외 체험 : 호치민묘, 문묘 관람
문화 체험 : 랜드마크 전망대 및 수상인형극 관람

호치민
야외 체험 : 호치민 시내 관람 (인민위원회–)노틀담 성당
–)중앙 우체국(중앙우체국에서 편지쓰기)–)대통령궁)
문화 체험 : 수상인형극 관람

8. 31 (일) 한국 귀국

베트남에서의 행복한 기억들을 한 아름 안고 한국으로~

2014 다문화 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최종보고회

일　　시 | 11월 23일(일) 12시~
장　　소 | 63빌딩 컨벤션센터
참 가 자 | 선정 가족 15가정 (총 68명), 권역단체, 연구팀 등 총 90여명
프로그램 | 참가가족 및 활동가 소감 나눔, 가족 프로그램(베트남 속담 맞추기 등), 왁스뮤지엄 관람

베트남 외가방문이 가져다 준 선물

부티항님

그동안 베트남에도 갔다 온 적도 있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한 번도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함께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2014년 큰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였고 곧 군대도 가게 되는데 엄마의 고향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 저에게 늘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아이들과 많은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아이들과 조금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베트남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이어서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평소에 베트남어를 알아듣기만 하고 전혀 구사하지 않았던 막내아들이 베트남에 갔다 온 후에 베트남어를 조금씩 하게 되었던 것은 정말 놀랍고 이로 인해 제가 아들에게 베트남어를 계속 가르쳐야 된다는 원동력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문화 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을 통하여 저희 가족은 더욱 더 서로를 이해하며 배려하는 기회가 되었고 저와 아이들의 관계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막내아들의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데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외가의 정, 잊지 못할 추억

류준모님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다문화가정이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아이들의 외가를 방문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모든 경비를 부담해주시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과 행복한 순간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외가는 말이 통하지 않고 낯선 환경으로 어색했지만, 외할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외가 친척들과 교감을 나누면서 외가의 뿌리를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온(베트남 전통 배)도 타보고, 해먹에서 낮잠도 즐겨보고, 친척들의 집을 방문해서 푸짐한 대접도 받으면서 외가의 정을 흠뻑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베트남 아내에 대한 배려와 아이들에게 외가의 정을 느끼게 해주고, 전문가 선생님들까지 동행해서 아이들을 케어해주신 점 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감동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으로 가족들의 추억이 하나 들어졌고, 한국인 남편들에게는 어깨에 지고 있던 큰 짐을 덜어주신 셈이 되었습니다.

2014 다문화 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주최 및 후원사를 소개합니다

주　최

한국여성재단

후원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2014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주최 소개

한국여성재단은

한국여성재단
KOREA FOUNDATION FOR WOMEN

딸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1999년 12월,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원해왔습니다.
나아가 돌봄공동체와 나눔문화가 바탕이 된 대안적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공익재단이며 여성을 위한 유일한 민간재단으로서, '딸들에게 희망을' 만들기 위한 한국여성재단의 열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성의 인권과 평등 문화 지원

이 땅의 남성과 여성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들을 지원합니다.

- 여성폭력 예방, 인권증진 사업
- 사회 전 분야의 여성리더 발굴, 육성 사업
- 성차별적 관행, 문화 개선 사업 등

소외계층여성 지원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 여성가장 및 자녀의 의료비 지원
- 결혼이주여성의 안전망 및 사회활동 지원
- 양육미혼모 및 자녀의 자립과 복지 향상 사업
- 한부모 여성가장 및 이주여성 취 · 창업 지원

여성 NGO와 활동가 역량강화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활동가들이 소셜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 여성활동가 쉼 · 재충전 지원
- 여성NGO활동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여성NGO, 여성쉼터 시설 개보수 지원

돌봄공동체 구축

미래 세대와 함께 대안적 경제, 생활, 문화 공동체 활동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 다문화자녀 멘토링
- 돌봄노동의 사회화
- 돌봄커뮤니티의 여성리더십 지원

2014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후원사 소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생명보험업계는 세계 8위로 발돋움한 국내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준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에 보답하고자 생명보험회사들의 개별적 사회공익사업과는 별도로 2008년부터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7년 11월 생명보험협회와 국내 17개 생명보험회사들이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협약을 맺고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를 설립한 이래로 사회 각 분야에서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는 19개 생명보험회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등 3개 운영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어린이집 건립 및 보육지원, 저출산 해소 및 미숙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지원, 자살예방 지원,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 사회적의인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금융보험교육 등 학술교육 분야 지원, 은퇴준비 인식제고사업 등 공익확산 분야 지원,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통해 건전한 보험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은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들을 매년 사회공헌활동 파트너 단체로 선정하여 노약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 어린이 · 청소년 복지지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기타 대국민 복지 지원 등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생명보험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기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국민이 생명보험산업에 베풀어 주신 사랑에 보답하고, 보다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SAMSUNG 삼성생명

삼성생명은 1982년 보험업계 최초로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설립한 이래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사랑' 나눔경영을 바탕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활동,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활동,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써의 나눔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사회와 공유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저출산 문제해결과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기여하는 '세살마을 사업', 건전한 청소년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세로토닌 드럼클럽',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질병 및 자살예방사업', 저소득층 여성가장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창업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을 비롯해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체계적인 양육서비스 제공,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환경보호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자 중국 전동휠체어 지원, 태국 및 베트남에서 컴퓨터실 및 교육기자재 지원, 태국 맹그로브 식수 봉사활동 등의 해외 공헌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고사리손기금〉은 어린이가 기부하고 어른이 응원하는 모금캠페인으로 아시아의 또래 친구들을 돕는데 쓰입니다.

딸들에게 희망을

아이의 이름으로 나눔을 물려주세요

돌아보면 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이 자랑스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
더 이상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의 소녀들이 누구나 학교에 다니면서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고사리손기금에 기부해주세요!

● 기부신청 및 안내 : 02-336-6463 (고사리손기금 담당자)

후원 : 농협 1279-01-000801 (한국여성재단)

고사리손기부자 : 이가윤(역삼중2), 최윤정(인수중3), 이슬아(덕성여고1)

이렇게 쓰였습니다!

네팔 초등학교 학생들과 필리핀 보홀긴급구조센터(BCIC)의 소녀들에게
교육에 필요한 물품(교복, 가방, 물병, 체육복, 급식 및 교통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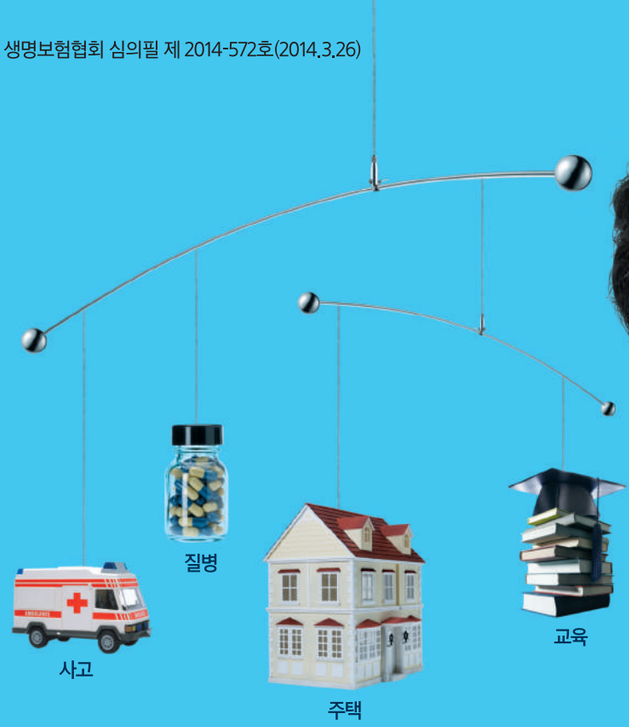
₩1,000	하루 교통비와 점심식사
₩5,000	운동화 한 켤레
₩10,000	책가방 한 개
₩20,000	교복 또는 체육복 한 벌

네팔의 아이들

필리핀 보홀의 아이들

한국여성재단 KOREA FOUNDATION FOR WOMEN
(121-84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서교동 448-17)
Tel 02-336-6364 Fax 02-336-6459 E-mail womenfund@womenfund.or.kr Homepage www.womenfund.or.kr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4-572호(2014.3.26)



삼성생명 종신보험으로 인생자금의 황금비율을 맞춰보세요

삼성생명 종신보험의 새 약속
골든밸런스

삼성생명 종신보험 골든밸런스

인생 필요자금과 보장의 밸런스, **삼성생명 종신보험**으로 맞춰보세요

가족을 위해 : 나를 위해
오래오래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가족보장
아이들 다 크면 행복한 노후를 위해 연금전환

많이 벌 때 : 적게 벌 때
여유가 있을 때 추가 납입 기능으로 더 든든하게
수입이 적을 때 중도인출 기능으로 긴급자금 활용

작은 병을 위해 : 큰 병을 위해
다양한 질병, 상해에 필요한 병원비 대비로 실속있게 /
갑작스런 중대질병에 필요한 의료비 및 생활비 대비로 안심 /
(특약 가입시)

삼성생명 컨설턴트에게 **'골든밸런스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보험계약자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변액보험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 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변액보험은 운용 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보험의 보장을 종료 또는 감액하여,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하여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은 당사 기준에 따라 연 4회 한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시 인출금액은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되고 1회당 인출한도는 주보험 해지 환급금의 50% 이내입니다. 중도인출 후 추가납입 하는 경우 추가납입금액의 일부가 계약 관리 비용으로 차감되므로 반드시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특약 가입시,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 1588-3114 | http://www.samsunglife.com

삼성생명 SAMSUNG